11월 북한매체 보도 동향

1. 농업정책

□ 농업정책

○ 온 나라가 떨쳐나 물확보를 힘있게 벌리자 (로동신문 2014.11.7)

- 현시기 물을 더 많이 확보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농업을 비롯한 국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매우 중요한 과업임.
-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처에서 중소형발전소건설이 진행되었으며 크고 작은 저수지들이 많이 생겨났음.
- 개천-태성호 물길은 처음으로 대규모자연흐름식관개체계의 본보기로 건설된 것임. 백마-철산, 미루벌물길이 완공되어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었음.
- 세계적으로도 물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초미의 과제임. 기후변화로 인한 물자원의 고갈과 인구의 급속한 증가, 공업 및 농업용수의 엄청난 소비와 물오염 등으로 물문제가 날이 갈수록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음. 물문제로 인해 나라사이 분쟁까지 일어나고 있는 현실은 물자원을 확보하고 최대한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 것인가를 실증해 주고 있음.
- 올해에 왕가뭄이 들어 물문제 해결이 중요한 과업으로 대두되고 있음. 기상관측자료에 의하면 100년 동안 올해만큼 강수량이 적었던 해는 없었음. 그 결과 수력발전소의 전력생산량이 떨어지고 많은 농업용 저수지들이 마르거나 물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여 다음해 농사에 쓸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 놓이게 됨.
- 전당, 전국, 전민이 물원천을 최대한 탐구 및 동원하는 사업에 힘을 쏟아야 함. 농촌에서는 저수지와 저류지, 보막이건설, 물주머니만들기, 논판물잡이를

해야 함. 굴포와 우물을 파고 졸짱[1]을 박아 지하수를 퍼올리고 새 물길도 건설하여 논밭에 물을 충분히 댈 수 있게 해놓아야 함. 모든 역수양수장들에서는 양수설비에 대한 수리 및 정비를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하고 설비마다 만부하를 걸어 저수지에 물을 가득 채워 넣도록 해야 함.

- 관개부문 일군들은 물잡이정형과 관개구조물들, 양수동력설비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해당 대책들을 빈틈없이 세워 물확보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함.
- 내각과 해당 성, 중앙기관에서는 맡은 책임을 다하여 역수양수기를 돌리며 저수지, 저류지를 비롯한 물확보시설공사에 필요한 전력과 시멘트, 연유 등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에 힘써야 함. 황해남도물길공사를 완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재보장을 비롯하여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풀어주어야 함.
- 농촌에서는 물길가시기, 물길진흙다짐 등을 진행하여 물낭비를 철저히 없애야 함. 동해지구 농사에서 논벼 정보당 1톤 이상 증수한 안변군 사평협동농장을 비롯해 적은 물로 농사를 잘 지은 단위의 앞선 논물관리방법을 다음해농사에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를 잘해야 함.
- 공장, 기업소에서는 저수지와 강하천의 물을 공업용수로 이용하고 있는 것만큼 물을 회수하기 위한 기술혁신에 힘을 쏟아야 함.
- 수력발전소에서 물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전력생산을 늘리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함.

○ 물절약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 (로동신문 2014.11.14)

- 김정은은 “전사회적으로 절약을 강화해 한w의 전기, 한g의 석탄, 한방울의 물도 아껴 쓰도록 하며 모두가 높은 애국심과 주인다운 태도를 갖고 나라살림살이를 해나가는 기풍을 세워야 한다”고 말함.
- 평양시상하수도관리국에서는 배수지의 물탱크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내부예비를 동원하여보수사업에 필요한 자재를 자체로 마련하기 위한 대책을 세웠음. 또한 상수도를 통한 물의 도중손실을 막기 위해 물이 새어나오는 곳을 발견하면 짧은 기간에 수리함.

1) 땅속 깊이 관을 박아 땅속의 물을 끌어 올리는 설비. 관의 밑부분은 물만 들어오도록 여과 시설을 하고 윗부분은 물을 끌어 올리기 위한 진공 펌프 시설을 함.

- 관리국에서는 시안의 기관, 공장, 기업소를 비롯한 모든 단위에 카드식물류량계를 도입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해 물절약사업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음.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카드식물류량계를 도입한 단위에서는 종전에 비해 30%이상의 물을 절약하고 있다고 함.
- 현재 관리국에서는 시안의 여러 아파트들에 카드식 물류량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그것을 모든 가정에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그리고 기관, 기업소, 공장을 비롯한 모든 단위와 가정에서 물절약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공급되는 물을 아껴쓰도록 하기 위한 사업도 하고 있음.
- 관리국에서는 전반적인 수원지와 펌프장에서 전동기와 배전반을 비롯한 기대와 설비에 대한 점검보수와 관리를 책임감있게 하도록 하는데 성과를 거두고 있음.

▢ 과학영농

○ 과학기술발전을 적극 추동하는 우리의 프로그램 기술 (로동신문 2014.11.4)

- 3대혁명전시관 새기술혁신관에서 열린 제25차 전국프로그램 경연 및 전시회는 농업부문과 건설부문, 과학기술부문에서 개발한 농업정보프로그램과 건설설계 프로그램이 많이 출품되었음.
- 관련 프로그램으로는 태양열을 이용하는 농업용저수지의 물관리조종체계, 어장탐색지원체계 등의 프로그램이 있었음.
- 농작물의 생육시기에 따른 적합한 온도의 물을 자동적으로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조종체계도 좋고, 보다 많은 해양환경자료들을 해석 처리하여 어장평가에 이용하는 어장탐색지원체계도 좋았음.

○ 대용연료를 효과있게 이용 (로동신문 2014.11.14)

- 남포농업대학에서 발명한 대용연료를 이용하는 발동발전기가 대학의 교수교양사업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음.
- 두 개의 가스발생장치와 냉각 및 청정장치, 두 개의 발동기관과 그에 잇닿은 두 개의 발전기로 이루어진 이 발동발전기는 전적으로 대용연료인 알곡부산물만으로 운영됨.
- 시간당 100kg정도의 대용연료를 태워 여기에서 얻어지는 가스로 125kw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니 결국 대용연료를 1kg으로 1.25kW의 전기를 생산하는 셈임.

- 이 알곡부산물을 이용하는 이 발동발전기를 받아들인 여러 양정사업소에서 그 덕을 보고 있으며, 대학에서는 알곡부산물을 태우고 나온재까지 재이용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심화시키고 있음.

□ 농사 차비

○ 다음해 농사차비를 힘 있게 다그치자 (로동신문 2014.11.27)

- 농업부문의 중요한 과업은 2015년 농사차비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임.
- 농사차비를 잘하는 것은 한해농사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업이며, 차비를 성실히 해야 시작부터 본때 있게 지을 수 있음. 안악군의 경우처럼 지력높이기와 씨뿌리기를 비롯한 모든 영농공정들을 계획대로 달성할 수 있는가는 차비에 달려 있음.
- 올해 큰 가뭄과 외부에서 (북한에) 각종 제재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부문에서 역량을 집중하여, 자랑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를 교훈 삼아 2015년 농사차비에 집중해야함.
-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를 열어 농업생산에 전환을 일으켰으며, 농업근로자들의 열의가 상승하였음. 또한 농촌경리부문의 모든 일군과 당원 근로자는 주인의식을 갖고, 자기농장, 자기 작업반, 자기 분조농사는 책임의식으로 다음해 농사차비에 집중해야함.
- 농사의 기본은 물이며, 농사차비에서 물 문제 해결은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과제임. 2014년 10월 말까지 강우량은 518.9mm 지나지 않았음. 농업용저수지의 저수량이 절반도 되지 않으며, 저수지에 물을 채워 넣어야함. 관개부문 일군 근로자는 모든 역수양수장에서 양수설비를 최대한 가동하고, 협동농장에서는 물주머니와 보막이, 논판물잡이를 비롯한 보조수원들의 물을 이용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집행해야함.
- 이와 동시에 물절약을 해야함. 저수지언제를 비롯한 물잡이시설과 관개구조물에 대한 보수정비를 하여, 낭비를 줄여야함. 일군과 당원들 근로자들은 저수지구조물보수와 물길 정비시기를 땅이 얼기 전에 완료해야함.
- 종자를 넉넉히 확보해야함. 2014년 농사에서 성과를 거둔 농장은 지대적 특성에 맞는 다수확품종의 종자를 확보하고, 이용했었음. 우월성이 확증된 종자들

을 선택, 선별하여 냉해를 방지하고, 정보당 10톤 이상의 소출을 낼 수 있는 다수확 품종의 논벼, 강냉이를 비롯한 농작물의 종자를 확보해야함.

- 농촌경리부문에서는 논밭 정보당 20~30톤씩 뿌릴 수 있는 질 좋은 거름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해야함. 농산과 축산의 부문 간 고리형 순환생산체계를 확립하여, 농장세대에는 20톤, 비육분조에서는 500톤, 축산작업반에서는 1,000톤이상의 거름을 생산해야함. 흙보산비료, 람조류생물활성퇴비, 아미노산미량원소복합비료등 효능 높은 유기질비료생산에 박차를 가해야함.
- 논밭갈이에 힘을 쓰며, 모판만들기와 모판자재준비를 해야함. 함주군 동봉협동농장을 비롯한 많은 농장에서 합리적인 토양관리기계들을 받아들여 논깊이갈이로 지력을 개선하고, 농작물 성장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였으며 알곡생산을 높였음. 논밭갈이와 모판만들기를 과학적으로 계산하여, 모판자재확보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진행하여야함.
- 이른큰모에 의한 논벼소식재배방법을 받아들인 운전군, 영양단지모를 80%이상 논에 받아들인 배천군과 같은 실례는 과학농사의 중요성을 다시 상기시킴.
- 또한 농업부문에 국한 될 것이 아닌,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농업부문이 차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추진해야함. 특히 비료생산자처럼 영농물자의 보장 대책을 현실성 있게 세워 나가야하고, 농기계와 부속품 생산을 늘리기 위한 계획이 필요함.

2. 감자농사

☐ 감자농사

○ 2.5배에 달하는 감자를 가공처리 (로동신문 2014.11.25)

- 부전감자농마공장 일군과 종업원들은 2013년에 비해 2.5배에 달하는 감자를 가공처리 하였음. 공장의 일군과 종업원들은 감자캐기를 앞두고 농마생산준비사업에 집중했고, 공장을 최대한 가동하기 위해 설비관리를 하였음.
- 연간 수천톤의 감자농마생산능력을 가진 부전공장은 감자접수공정, 세척공정, 정제공정, 건조 및 제품포장공정으로 이뤄져 있으며, 상호 연계된 생산공정은 종합적인 조종체계에 의해 돌아가게 되어있음.

· 공장의 지배인과 세척작업반원, 설비관리원, 종합조종실에서는 기계설비 조종에서부터 설비점검보수, 가공작업반원과 포장작업반원이 각기 맡은 역할을 수행해나갔고, 짧은 기간에 많은 양의 감자농마를 생산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3. 축 산

□ 축산동향

○ 산을 낀 유리한 조건을 이용하여 (로동신문 2014.11.8)

· 풀과 고기를 바꿀 데 대한 당의 축산정책을 따라 벽동군 남중협동농장 종축작업반에서 축산을 잘해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작업반에서는 120여 m^2의 염소우리와 게사니(거위)우리 등 집짐승우리들을 건설하고 축산을 잘할 수 있는 물질적 토대를 갖추어놓았음. 작업반에서는 서저골에 120여정보의 인공풀판을 조성하고 이동방목지에 염소우리도 건설해 염소마리수를 늘려나갔음.

· 작업반에서는 칡과 농토산부산물을 이용하여 알곡먹이소비기준을 대폭 낮추면서도 돼지와 오리, 닭을 비롯한 집짐승기르기를 통해 농장원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있음.

· 작업반에서는 농업과학기술지식선전실을 꾸려놓고 집짐승사양관리와 관련한 기술학습을 진행하고 있음.

○ 나날이 흥하는 농장마을 (로동신문 2014.11.9)

· 강동군 구빈축산전문협동농장에서는 구빈리 특산물인 케피르[2]와 빠다(버터), 치즈를 생산하고 있음.

· 이 농장은 몇 마리의 젖소로 시작해 현재는 수백마리의 젖소 떼가 있고 20여 톤의 우유를 생산하고 있음.

· 농장에서는 염소마리수를 늘려 젖생산을 장성시킨 것은 물론 알곡생산계획도 넘쳐 수행하고 있음. 또한 자체의 힘으로 스피룰리나생산기지를 꾸려놓음으로써 여기서 나오는 생산물로 집짐승 먹이의 질도 높이고 농장원의 살림도 윤택

2) 불가리아 등의 산악 지대에서 양이나 산양의 젖을 사용하여 만든 발효주. 유산균과 알코올 발효균이 들어 있는 케피르 종균으로 발효시켜 만듦.

하게 하고 있음. 게다가 메기양어와 온실농사에서도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염소 떼 흐르는 사덕산등판 (로동신문 2014.11.9)

- 장강군염소목장은 해발1,200미터의 사덕산 등판에 자리 잡고 있음. 군염소목장의 일군과 방목공들은 풀과 고기를 바꿀 데 대한 당정책에 따라 사덕산등판에서 염소기르기를 하고 있음.
- 이곳 목장에서는 올해에도 염소마리수를 1,100마리 이상으로 늘리고 생산한 많은 양의 고기를 군안의 여러 단위에 보내주어 주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하였음.
- 이곳 목장에서는 2015년 봄까지 어미염소 마리수를 지금보다 더 늘려 한해에 10톤의 고기와 많은 젖을 생산할 목표를 세웠음.

○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성과 확대 (로동신문 2014.11.17)

-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에서 한 달 동안 계획된 29km구간의 전주조립, 여러 변전소의 구내전주세우기 및 강철구조물조립공사를 진행하였음. 그리고 근 8,000정보의 인공풀판과 600여정보의 방풍림구역을 정리하고 7,000여정보의 먹이풀판에 영양액을 주었으며 1만여톤의 유기질비료생산과 5만여톤의 겨울철집짐승먹이를 확보하였음.. 또한 280여동의 살림집, 집짐승우리를 비롯한 건축물과 도로공사도 마무리 하였음.
- 전력공업성여단에서 한달동안 철근콘크리트전주를 연 70여리구간에 근90기 조립하고 여러 변전소의 구내에 근 150기를 세웠으며 강철구조물조립공사도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음.
- 조선인민군 주동철소속부대와 인민보안부여단의 지휘관과 군인건설자들은 5,300여톤의 먹이풀을 보장하여 말린풀과 풀절임생산에 기여하였음. 대성지도국, 화학공업성돌격대에서는 530여톤의 먹이풀을 생산하였으며 나선시여단에서도 많은 양의 풀을 거두어들였음.
- 평안남도, 평안북도, 평양시여단에서는 많은 양의 겨울철집짐승먹이풀을 생산보장하였음. 그 결과 올해 세포등판에서는 3만 1,000여톤의 풀절임과 2만여톤의 말린풀이 생산되었음.

4. 농업기반

▢ 토지정리, 간석지, 국토관리 사업

○ 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어 (로동신문 2014.11.13)

- 자강도 강계-만포령길도로개건공사에서 강계시의 외룡-내룡륜환선도로의 여러 구간이 콘크리트로 새로 포장되었고 우시군 하창지구에 수 km의 새 도로가 생겨났음. 또한 초산군에서는 구룡지구의 도로기술개건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었음. 화평군에서는 자성강에 콘크리트 다리를 세웠으며 초산군에서도 송묘1다리를 새로 건설해놓았고 강계-만포도로구간에 3개의 콘크리트 다리가 새로 건설되었음.
- 장자강, 청천강, 자성강을 비롯한 자강도 안의 많은 강하천에 14만m^2의 장석이 쌓이고 강계시의 남천, 북천제방보수공사가 진행돼 국토의 면모가 일신되었음.
- 자강도에서는 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 수종이 좋은 나무모종자채취계획을 112%로 넘쳐 수행하였음. 자강도의 시, 군에서 산이 많은 지대적 특성에 맞게 야계공사도 추진함.
- 강원도에서도 도로를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 이천군에서는 수백톤 능력의 파쇄장을 꾸려놓고 도로의 기술상태를 개건하는데 필요한 자갈을 자체로 마련하여 도로의 노반공사에 이용하고 있음. 통천군에서는 추지령령길을 비롯해 군의 도로에 대한 확장공사와 노반다짐, 안전보호벽보강공사를 비롯해 전반적인 도로의 기술상태를 일신시키고 있음.
- 강원도 북동군을 비롯한 다른 군에서도 단계별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고 도로의 견고성과 문화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음.

▢ 물길공사, 저수지, 물보장 사업

○ 전국적으로 460여km의 도로 기술개건, 1,300여km의 강하천 정리 (로동신문 11.10)

-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사업이 시작되어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460km의 도로가 개건되고 1,300여km의 강하천이 정리되었음.
- 녕원군과 맹산군, 대흥군을 비롯한 많은 군에서 도로기술 개건공사에서 도적으로 많은 토량을 처리하고 여러 지역의 도로를 개건하였음.
- 함경북도에서는 수십km의 도로를 개건하여 늘어나는 수송수요와 주민들의 교

통상 편리를 더 잘 보장할 수 있게 하였음.

- 부령군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1만 수천m^3의 토량을 처리하고 도로 폭을 넓혔을 뿐 아니라 수십리 구간에 연 9,000m^2의 옹벽공사를 하였음.
- 황해남도 당원과 근로자들도 수백km의 강하천을 정리하였음. 배천, 삼천, 은률군 일군과 근로자들은 좁아진 구간은 넓히고 높아진 부분은 파내어 제방을 쌓았음.
- 황해북도에서도 수천미터의 강하천을 정리하였으며, 함경남도에서도 연 200여 km의 강하천을 정리하였음. 덕성, 신흥, 영광군 일군과 근로자들은 제방을 쌓고 돌을 입혀 큰물로부터 농경지를 보호할 수 있게 하였음.

5. 산림

□ 통나무 생산

○ 하루 동발나무생산 1.5배 장성 (로동신문 2014.11.1)

-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임업성적으로 매일 지난 시기의 1.5배에 달하는 동발나무가 생산되어 나오고 있으며 2014년 10월 25일까지 임업성적으로 동발나무생산계획을 끝내는 결과가 나왔음.
- 덕천갱목생산사업소에서는 산지조건에 맞는 나무베기 및 나르기 방법을 받아들여 10월 1일까지 높이 세워진 월 동발나무생산계획을 앞당겨 완수하였음. 북창, 양덕, 대흥, 평화갱목생산사업소에서 매일 계획의 2배 이상의 실적을 기록함으로써 많은 양의 동발나무를 생산하여 탄광들에 보내주었음.
- 양강도임업관리국 연암, 백암갱목생산사업소에서는 임철기관차와 자동차들의 수리정비를 통해 가동률을 높여 날마다 많은 양의 동발나무를 생산하고 있음.
- 자강도임업관리국 성간림산사업소와 강계갱목생산사업소, 함경남도임업관리국 홍원, 수동, 정평갱목생산사업소, 함경북도 임업관리국 회령, 경원, 온성, 부령, 경성, 명간갱목생산사업소를 비롯한 많은 생산단위에서 10월 동발나무 생산계획을 앞당겨 끝냈음.
- 지난 10월 2.8직동청년탄광과 천성청년탄광에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각각 1.5배 1.7배에 달하는 동발나무가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순천, 덕천, 북창, 득장

지구의 화력탄생산단위에 근 1.4배에 달하는 동발나무가 보내졌음.

□ 나무모 생산 및 나무 심기

○ 전국적으로 660여톤의 종자 채취, 근 8억그루의 나무모 생산 (로동신문 2014.11.20)

·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각지 일군과 근로자들은 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사업이 시작되어 지금까지 660여톤의 종자를 채취하고 약 8억그루의 나무모를 생산한 데 이어 나무심기도 하고 있음.

· 양강도에서는 도적으로 나무종자채취계획을 113%로 넘쳐 수행하였으며 자강도에서는 종자채취사업에서 계획을 128% 넘쳐 수행하였음.

· 평안남도 산림경영소에서 야외재배장, 저장고, 온실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축산과 나무모생산의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세우고 나무모생산에 힘을 쏟았음. 신양군에서도 자연흐름식관수체계를 세워놓고 많은 나무모를 키워냄.

○ 각지 농근맹 일군들과 농업근로들 나무심기 진행 (로동신문 2014.11.28)

· 각지의 농근맹 일군과 농업근로자는 금수산태양궁전 수목원에 수종이 좋은 갖가지 나무를 심었음.

· 2013년과 동일하게 농근맹중앙위원회 일군들과 평양시, 평안남도, 평안북도, 황해북도의 시(구역), 군 농근맹의 일군, 농업근로자들이 참여했으며, 15종의 8,900여 그루의 나무와 나무모, 다리아를 비롯한 5종의 8,500여개의 꽃뿌리와 꽃씨를 마련하였고 심었음.

6. 기타 작물

□ 과수

○ 전국과수부문 전시 및 발표회 진행 (로동신문 2014.11.28)

· 전국과수부문 전시 및 발표회가 11월 25일부터 11월 27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음. 과수부문의 생산단위와 과학, 교육기관의 과학자, 기술자, 일군들이 참가함.

· 전시회에는 새로운 과일 나무모와 우량 품종들, 농기계생산방법, 열매맺음률을

높인 방법을 비롯하여, 과일나무자래우기를 안전하게 하면서 생산을 증대시킨 과학기술적 성과물들이 관심을 끌었음.

- 발표회에는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는 과수재배기술, 병해충구제방법, 과수작업의 종합적 기계화실현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130여건의 연구논문이 제출되었음. 육종기일을 앞당긴 새로운 사과품종의 육종방법의 특성, 초산동 혼합애에 의한 과일나무 주요병 구제 방법, 여름가지 자르기에 의한 키낮은사과나무의 꽃눈분화률 높이기를 비롯한 논문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음.

❑ 남새

○ 버섯생산량을 늘린다 (로동신문 2014.11.3)

- 각지의 일군들은 연간 수백 톤 능력의 현대화된 버섯공장들을 세웠음. 각지 버섯공장의 일군들, 기술자, 노동자들은 무균화공정설비를 비롯한 현대적인 설비에 만부하를 걸면서 많은 버섯을 생산하고 있음.
- 지금 각지 버섯공장에서는 종합짚분쇄기, 운송기, 기질멸균로를 비롯한 설비에 대한 기술관리를 하는 한편 기대공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여 질 좋은 기질들을 생산하고 있음.
- 공장의 기본생산건물에서는 흰곤봉버섯재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궁륭식박막온실에서는 느타리버섯과 비늘먹물버섯, 털검정버섯등이 재배되고 있음.
- 국가과학원 중앙버섯연구소의 과학자들이 버섯공장에 나가 종균배양과 기질생산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여 버섯재배실적을 올리는데 크게 기여 하고 있음.
- 버섯공장에서는 월마다 생산목표를 높이 세우고 자기 지방에 흔한 자재와 원료로 버섯을 대대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고 있음.

○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 (로동신문 2014.11.12)

- 김정은은 “버섯을 현대적인 과학기술을 도입하여 공업적 방법으로 생산하는 것을 일반화” 해야 한다고 말함.
- 정방산버섯공장에서는 버섯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있음. 공장에서는 종업원들이 모든 설비를 표준조작법의 요구대로 다루도록 요구성을 높이고 있음. 그리고 종균접종에서의 무균화를 보장하는 것과 함께 균배양과 재배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며 온습도보장을 책임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 재배 1,2작업반의 노동자, 기술자들도 온습도보장과 균배양 및 버섯재배에서 필요한 기술적 요구를 지켜 버섯생산을 늘리는데 기여하고 있음.
- 해주버섯공장에서도 버섯생산을 정상화하고 있음. 해주버섯공장은 수만 m^2의 부지면적에 10여동의 생산건물과 부속건물을 가진 수백톤 능력의 현대적인 버섯생산기지임.
- 작업반에서는 느타리버섯생산에서 성과를 내고 있으며 버섯생산에 더 큰 힘을 쏟고 있음.

○ 자체의 재배장을 꾸려놓고 (로동신문 2014.11.12)

- 2.8직동청년탄광공무직장에서 자체의 힘으로 재배장을 꾸려놓고 버섯기르기를 잘해나가고 있음.
- 톱밥을 비롯한 나무부산물을 주원료로 해 버섯을 생산할 수 있게 꾸려진 이곳 버섯재배장에는 발효실, 접종실, 배양실, 재배실이 갖춰져 있음. 직장에서는 버섯생산 종균을 자체로 생산하고 있음.
- 탄광에서 나오는 톱밥과 같은 나무부산물을 이용하여 버섯을 생산하니 실리도 컸음.

○ 온실남새농사의 덕을 본다 (로동신문 2014.11.21)

- 순천시남새온실농장에서 생산된 남새가 시안의 상업망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되어 주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음.
- 남새온실농장에서는 남새재배구역에 100여톤의 유기질비료를 내고 작물에 대한 비배관리를 과학적으로 해 좋은 작황을 마련하였음. 특히 관리원들의 호동책임제를 실시하고 노력일평가와 총화사업을 진행하여 생산성을 높였음.
- 선동, 냉동칸이 달린 수십톤 능력의 남새저장고를 이용하여 계절에 상관 없이 신선한 남새를 보낼 수 있는 준비를 해놓았음. 종업원들은 봄에 150여톤의 부루, 쑥갓 등 잎남새들을 상업망에 보내준데 이어 이번에 70여톤의 많은 열매남새를 수확하였음.

7. 기타 보도 동향

□ 비료, 거름

○ 주체비료생산에서 조업 이래 최고실적 돌파 (로동신문 2014.11.9)

·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에서 새 시비년도 비료를 생산함. 집중적인 보수정비를 끝낸 남흥노동계급이 매일 많은 양의 주체비료를 생산하고 있음. 얼마 전에는 종전의 가장 높은 생산실적의 1.2배에 달하는 최고수준이 기록되었음.

· 보수정비는 지난시기와 달리 1계열과 2계열을 엇바꾸는 식으로 진행되었음. 수많은 화학장치물과 설비들, 관로망에 대한 보수정비, 수백 톤에 달하는 촉매 교체작업을 보수기일을 단축하면서 주요생산공정의 과학화수준을 높였음.

· 화학공업기지에서는 여러 가지 생산조건에 맞는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받아들여 가스발생공정에 지난 시기보다 많은 양의 봉탄을 보장하고 있음. 발생로직장의 기대공들은 최대한의 실수율을 보장하는 원칙에서 맡은 설비들을 책임적으로 운전하여 매일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음.

· 화학장치물 노동자 및 기술자들은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지켜 같은 조건에서 더 많은 비료를 생산하고 있음.

□ 잠업

○ 10월계획 빛나게 완수 (로동신문 2014.11.4)

· 잠업비단지도국에서 10월 계획을 성공적으로 끝냈음. 잠업비단지도국 공업총생산액계획은 109.3%, 비단실, 일반천생산계획은 각각 100.2%, 100.1%로 수행되었음.

· 함흥제사공장에서는 공정간, 교대간 사회주의증산경쟁을 통해 날마다 높은 실적을 기록하였음.

· 기대관리, 설비관리, 고치선별, 실켜기 등 모든 공정에서 혁신을 일으킨 강서, 성천 제사공장에서도 월 계획을 넘쳐 수행하였음.

· 박천견직공장일군과 노동자들은 원자재보장을 우선순위에 놓고 만가동을 보장하여 일반천 생산계획을 121.9%로 마무리하였음.

○ 더 많은 누에고치를 (로동신문 2014.11.7)

· 평안북도의 여러 고치생산사업소에서 올해 누에고치생산계획을 수행하였음.

·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도의 고치생산사업소에서 누에치기에 힘을 쏟아 지난해

보다 더 많은 누에고치를 생산하는 성과를 이루었음.

- 김정일은 “누에고치를 많이 생산하면 인민생활을 더 높일 수 있다”고 말함.
- 일군들은 뽕밭관리와 누에치기에 필요한 비료와 농약 등을 고치생산사업소에 보장해주는 것과 함께 기술적 지도를 하였음.
- 정주고치생산사업소의 일군과 종업원들은 뽕밭비배관리에서 뽕잎생산 및 누에치기에 힘을 쏟아 연간 고치생산계획을 112.5%로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이루었음.
- 동림고치생산사업소에서도 누에치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해 연간계획을 110%로 넘쳐 수행하였음.
- 영변고치생산사업소에서는 내부예비를 동원해 사업소를 새로 건설한데 이어 고치말리기 장을 개건하기 위한 노력을 함. 그리하여 연간 누에고치생산계획을 108.7%로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연간 누에고치생산계획을 104%로 넘쳐 수행한 신의주 고치생산사업소에서는 고치말리기장을 새로 세워 종전에 비해 누에고치합격품 비중을 높일 수 있게 하였음.
- 정주, 태천잠업종자사업소에서도 뽕밭비배관리와 누에치기에 역량을 집중해 연간 누에고치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였음.
- 이밖에도 룡천, 박천, 대관고치생산사업소를 비롯한 도의 다른 고치생산사업소에서도 지난해보다 더 많은 누에고치를 생산하였음.

▢ 가뭄

○ 가물을 이겨내고 정보당 소출을 높인 비결 (로동신문 2014.11.14)

- 갑산군이 2014년 농사에서 최고수확년도 수준을 돌파하였음. 갑산군 사평협동농장에서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벼는 정보당 수확고가 1.5배, 강냉이는 2배, 감자는 4배로 장성하였음.
- 최근 큰 가뭄이 계속되었던 조건에서 성과를 이룬 비결은 자연지리적 특성에 맞게 물을 모아 포전에 흘러들게 하고 그 물이 가장 낮은 포전에까지 흘러가게 한 것임.
- 회린협동농장에서도 강냉이밭 김매기를 할 때 북을 두툼하게 주어 뿌리가 땅

속에 깊이 내려 가뭄피해를 덜 받게 기술적인 지도를 하였음. 그리고 산골물 줄기를 한데 모아 논에 흘러들게 함. 또한 산에서 흘러오는 물에 벼가 냉해를 받지 않도록 굴포에 물을 채웠다가 정오에 기온이 올라간 후 논에 물을 대었음.

- 이러한 방법을 통해 군에서는 왕가뭄을 이겨내고 알곡목표를 이룰 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음.

○ 50여개의 저류지를 왜 건설했는가 (로동신문 2014.11.16)

- 물확보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요즘 신포시에서 50여개의 저류지건설을 성공적으로 끝냈음.
- 논 한정보에 0.7정미(약 1만m^3)정도의 물이 보장되어야 농사를 안전하게 지을 수 있었으나 올해 일부 협동농장의 포전에는 그 절반도 안되는 양이 보장되었음.
- 신포시 일군들은 물을 확보하여 물을 가둬놓을 수 있는 저류지를 포전에 건설하기로 하였으며, 50여개의 저류지건설대상지가 확정되어 짧은 기간에 저류지와 물길건설을 끝냈음.
- 50여개의 저류지가 건설된 결과 이 저류지에서 모기르기와 모내기에 쓸 물량의 30%는 보장할 수 있다고 함. 뿐만 아니라 포전에 저류지가 건설되어 전기를 쓰지 않고도 물을 보장할 수 있음. 그리고 저류지에 물을 채워넣고 온도가 높아진 다음에 이용하면 냉해가 심한 지역에서 그것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시에서는 4,000여m^3의 토량을 처리해야 하는 4호수로 물길공사와 저수지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수km의 물길공사도 마감단계에 있음.

□ 현지지도

○ 중앙양묘장을 현지지도 (로동신문 2014.11.11)

- 김정은이 최룡해, 최태복, 오수용, 한광상, 이재일과 함께 중앙양묘장을 현지지도 하였음.
- 김정은은 나무모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 산림 및 원림조성에 필요한 묘목들을 해마다 많이 생산했다고 평가했음.
- 또한 김정은은 계절에 관계없이 식수를 보장할 수 있도록 나무심기방법을 완성할 데 대한 과업, 나무모생산에 이용되는 해가림발 생산공정을 꾸릴 데 대

한 과업, 축산과 나무모생산의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확립할 수 있게 돼지목장을 세울 데 대한 과업, 종업원의 살림집을 더 건설할 데 대한 과업 등을 관철했다고 함.

- 김정은은 중앙양묘장에서 묘목생산기지를 확장하여 더 많은 나무모를 생산하며 나라 특성에 맞는 나무심기 및 관리방법을 완성할 뿐 아니라 용재림 조성에 필요한 나무모는 물론 관상적 가치가 있는 나무모들을 키워내야 한다고 지시하였음.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수종이 좋은 나무를 풍토순화시키는 것을 비롯해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도 해야 한다고 말함.
- 김정은은 중앙양묘장을 돌아본 후,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 하는데 필요한 과업들을 제시하였음. 또한 산림복구에서 성과를 거두려면 나무심기를 대대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산림보호이자 토지보호, 생태환경보호, 경제보호사업이라는 관점 밑에 숲을 보호하고 감독통제하기 위한 사업을 강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전했음.

○ 중앙양묘장을 현지지도 (로동신문 2014.11.19)

- 김정은이 제567군부대관하 18호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하였음. 황병서, 서홍찬, 윤동현, 리병철, 박정천, 김양건, 오일정, 한광상, 박명철, 리재일, 김여정이 동행하였음.
- 김정은은 물고기대풍을 위한 담보는 최첨단 과학기술과 선진적인 어로방법을 받아들여 수산업을 과학화, 현대화하는 것이라고 하였음. 수시로 변동되는 어황조건과 어기철에 맞게 어장탐색을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해 당이 제시한 물고기잡이 계획을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고 말함.
- 김정은은 어로공에게 노동보호물자와 식량, 기초식품, 부식물, 땔감을 비롯한 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도록 후방사업에 큰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하였음.

▢ 수산업

○ 연간계획을 1.5배로 넘쳐 수행 (로동신문 2014.11.7)

- 북청군 신창수산협동조합에서 물고기잡이와 수산물생산에서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 있음.
- 이곳 일군들과 어로공들은 지난 10월 중순까지 연간 물고기잡이와 수산물생산

계획을 1.5배 이상으로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이루었음.

- 김정은은 "수산부문에서 물고기대풍을 마련한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모범을 따라 고기배와 어구를 현대화하고 과학적 방법으로 물고기잡이를 힘있게 벌려 포구마다 만선의 소리가 울리게 하며 바닷가 양식도 대대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함.
- 일군들과 어로공들은 배무이와 배수리, 새로운 어구들과 여러 가지 고기그물 준비, 과학적인 어로방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함.
- 어로2작업반의 어로공들은 수십톤의 물고기를 더 잡아 제일 먼저 연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였음.
- 세소어업[3]을 발전시킬 데 대한 당정책을 따라 1,2,3,4 작업반의 어로공들은 어구준비를 잘하고 새로운 어로방법을 받아들여 작은 배를 가지고도 지난해보다 많은 물고기를 잡았음. 세소2작업반에서는 연간 물고기잡이계획을 지난 6월말에 앞당겨 끝냈음.
- 이곳 수산협동조합에서는 다시마생산에서도 성과를 거두었음. 양식잡업반에서는 다시마씨붙임을 적기에 하고 불리한 날씨조건에서도 다시마태장관리를 하였으며 수확을 제때에 하여 연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였음.
- 자원증식작업반에서도 어장관리를 책임감 있게 하여 참미역을 비롯한 수산물생산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음.

3) 간단하고 작은 어구와 배를 가지고 하는 아주 작은 규모의 어업.